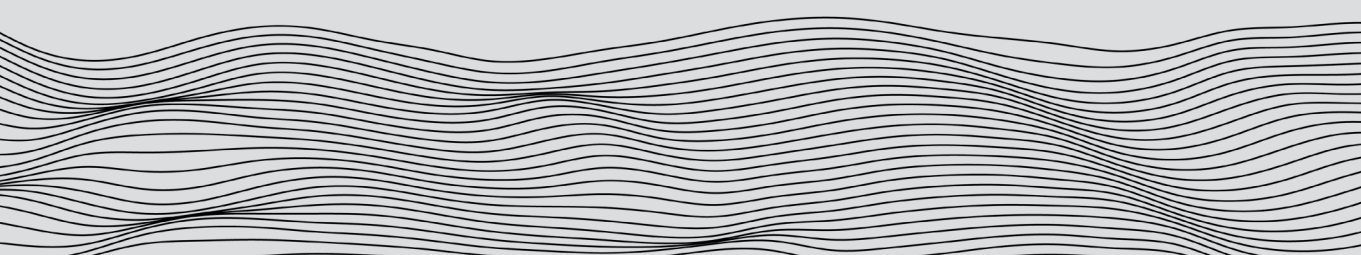




글로벌 심심

2021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결과보고서



목 차

About UCLG GYCR

004 사업개요

006 주제글 <흐르는 섬>

010 전체 일정

PARTICIPANTS

012 총괄디렉터

멘토

멘티

PROGRAMS

014 오리엔테이션

015 사전강의

016 고립레지던시

026 성과공유회

052 마무리 글

SURVEY

056 만족도 조사

FINISHING THE GYCR

063 GYCR 이야기

068 GYCR을 마치며

사업개요

UCL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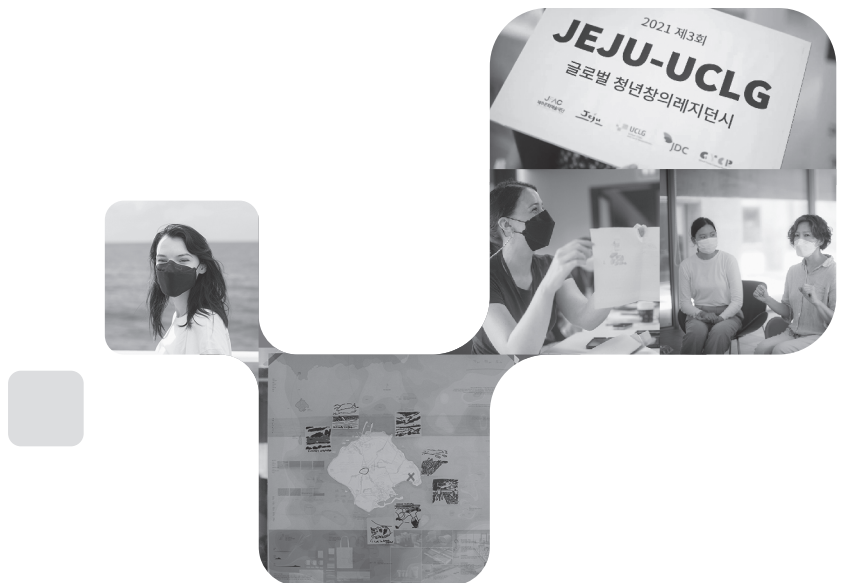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를 대표하고 지방정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현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0퍼센트가 가입되어 있으며, UN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도시연합체이다. UCLG 본부는 바르셀로나에 있다.

UCLG는 '문화를 위한 아젠다 21'(2004),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4번째 축'(2010) 선언, 그리고 실제적인 지침이 되는 '문화 21: 행동'(2015)에 기반 한 훌륭한 문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위 세 문서는 UCLG 문화위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UCLG 문화위원회는 800여개의 도시, 단체 및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독특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협력을 추진한다. 이 활동에는 동료 학습, 맞춤형 평가 프로그램, 글로벌 영향력 홍보 캠페인, 그리고 '문화를 위한 아젠다 21'과 '문화 21: 행동'의 실행을 촉진하고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출판 및 격년제 행사가 포함된다.

UCLG 문화위원회를 선도해온 도시 제주는 '문화를 위한 아젠다 21'의 실행과 관련해 폭넓은 경험이 있다. 2014년에 제주는 '문화를 위한 아젠다 21'을 보완, 업데이트하는 실용적인 지침인 '문화 21: 행동'의 초안을 작성하는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2017년 5월 10~13일에는 제2차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는 지역, 지방,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들의 세계 최대 규모 회의이다. 2017년에는 심층적 사고와 지역 차원의 행동을 결합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글로벌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할 것을 UCLG 문화위원회에 제안하였다. 2017년 5월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는 '문화를 위한 아젠다 21'과 '문화 21: 행동'의 가치에 대한 제주의 헌신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며, 문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파트너십, 정책, 프로젝트 및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다양한 문화 이해당사자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는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 아젠다의 핵심에 문화를 배치하고, 이 아젠다에 지역 차원의 참여 인식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UCLG 문화위원회의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다.



GYCR

2021년, UCLG 청년문화포럼(GYCF)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주관 하에 프로그램의 정체성 확립과 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GYCR)라는 새로운 명칭을 채택하고 사전강의 및 고립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운영방식을 체계화 하였다.

2021 UCLG GYCR은 국내외 창조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제주 섬에 모여 서로 영감을 주고 받으며 창조적 몰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국제교류 아트 프로젝트로서, 참가자들은 고립 레지던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제주에 관련된 주제 및 코로나 시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주제로 저명한 강사들의 온라인 사전강의 및 워크샵을 기회를 제공하고, 4박5일간의 고립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성과공유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발표하였다.

2021 GYCR LOGO

LOGO DESIGN
CONCEPT



Global
Residency

다양한, 조합,
공간, 영역

Young
Creatives

젊은, 날것의, 본연의,
투박한, 다듬어지지 않은,
독창적인, 개별



color Global 바다, 물, 흐르다
Young 빛나는
Creatives 앞
Residency 땅, 흙

독창적인 영역, 공간의 조합.

GYCR 알파벳을 단순화하여 영역, 공간의 의미를 담았다. 섬(제주라는 섬, 개인적인 섬)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잘 다음어진 형태가 아닌 투박한 형태로 표현

영역의 형태는 투박하다. 마치 돌을 깎아 놓은 듯 자연스럽고, 단단한 느낌을 담았다.



각각의 단어에 자연이 주는 상징적인 컬러를 담았다.

주제글 <흐르는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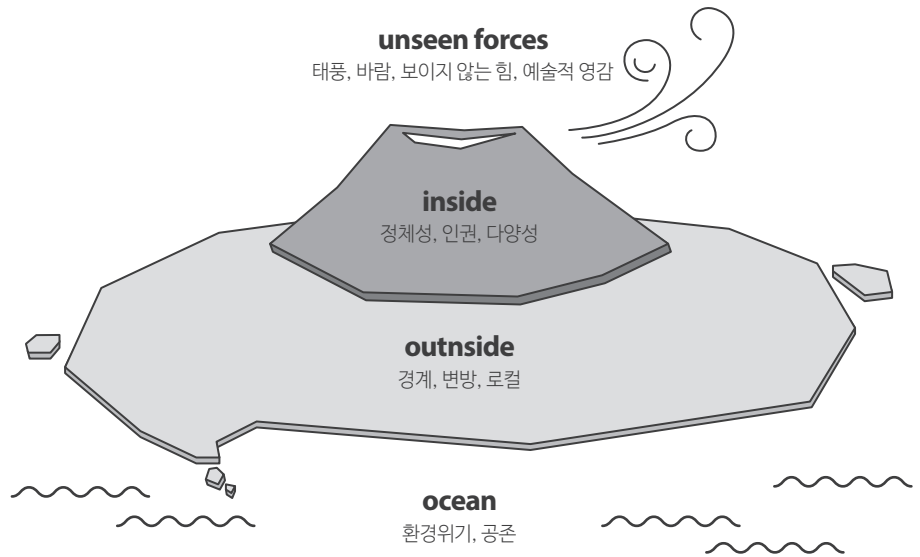
정은혜
총괄디렉터

섬은 지구의 마이크로코즘(Microcosm)이다.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하나의 바다와 그 위에 떠 있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육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고, 우리는 모두 섬 위에 산다고도 말 할 수 있다. 섬은 지구의 마이크로코즘(Microcosm)이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이다. 경계가 무너지고, 단단한 것이 흔들리는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특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 무엇인지들) 상상하게 해주는 은유이기도 하다.

“흐르는 섬”의 4 가지 의미

올해의 주제인 ‘흐르는 섬’은 여러 의미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지금의 유동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기후변화와 난개발로 인한 물리적인 지형변화로 인한 경계에 대한 혼돈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자아-타자 사이의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통해서 창조성과 새로운 가능성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자 한다. 보지 못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 무엇인지들) 상상하게 해주는 은유이기도 하다.



(1)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적인 상황

코로나19의 두 번째 해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발아래의 땅이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느낌은 우리가 예측가능한 단단한 방식으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그로인해 안전하다고 느껴왔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예측의 도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 할 수 없었던 사건 하나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은 역사에 계속 있어왔다. 이것을 '블랙 스완'이라고 부른다. 검정 백조 한 마리의 출연은 '백조는 하얗다'는 논제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린다.¹⁾ 가장 큰 충격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상황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를 거꾸로 생각해낸다. 하지만, 랜덤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 불가능 것이며, 우리의 앞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다. 땅 위에 사는 육지생명들의 생존은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의 생존에 달렸다. 산소의 3분의2가 바다에서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온이 높아지고, 산소를 생성하는 산호초가 죽어가고, 물속에 산소가 고갈되어 생명체가 살수 없는 데드존 (dead-zone)이 늘어나고 있다. 바다의 죽음은 육상동물의 죽음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곳이 땅이고 동시에 바다라는 점은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그러하다. 우리의 몸이 가상의 이미지로 치환이 되면서 어디에서든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인간이 사이보그가 되어 가고 바로 이 시점에 전 인류는 코로나로 인해 움직임을 멈췄다. 인간은 야생의 경계를 침범하고 서식지를 훼손한 결과로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에 걸렸고, 이를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동물성을 확인하게 되며, 우리는 정말 이 지구 생태계의 일부 생명임을 깨닫게 된다.

(2) 기후변화와 변화하는 경계

섬의 땅과 물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 이 경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개간을 통해 땅의 경계를 늘리고 있다. 또한 우리 육상동물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태풍과 수온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해초와 산호의 활동 또한 경계를 변화시킨다.

흔히 말하는 "섬처럼 동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섬이라는 은유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리에서 동떨어져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는 한다. 하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 연결의 일부뿐이다. 그렇다면, 땅과 물의 경계는 단절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연결에 대한 은유라고도 볼 수 있다.

1)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안티플래질 Anti-fragile』 와이즈베리, 2013

Islands in Flow

(3) 자아-타자의 변화

자기와 타인의 구분은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다. 타인의 타자성은 나라는 존재의 구분을 가능케 한다. 너는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다. 이전에는 물리적인 피부경계로 자기-타자를 구분했었다. 피부 안에 있는 것은 나이고, 피부 밖에 있는 것은 타자라는 명쾌하고 단순한 논제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몸, 인간의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인간의 심리학, 심층 생태학 등을 들여다보면, 이 구분이 더 이상 명쾌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 몸 안에서 나와 공생관계에 있는 100조의 박테리아 세포들은 나의 일부인가 아닌가? 타인과 공감하고 있을 때 나와 타인을 연결하게 하는 미러 뉴런은 또 어떠한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적으로 반응하느냐 활성화된 미러 뉴런의 활동은 나의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하루 종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연결망은 나의 일부인가 아닌가? 무엇이 인간의 외부이고 무엇이 인간의 내부인지조차 가능하기 어려운 이 혼란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까?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

(4) 창조성과 열린 가능성

이 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흐름이 있다. 바로 창조의 흐름이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까지 알던 지식이 통용하지 않는 세상을 만났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를 때,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힘이 창조성이다.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로컬로 행동하라”는 문구는 마치 세상이 잘 나누어져있는 카테고리 이해할 수 있다고 상상하게 한다. 하지만, 로컬과 글로벌의 관계는 상호연결적이고 순환적인 생태 연결망의 모습에 더 가깝다. 우리는 때때로 개인적인 행동밖에는 할 수 없지만, 이는 글로벌한 상황과 연결된 것이며, COVID-19과 같은 글로벌한 상황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레지던시의 어떤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관심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전세계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작업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범위는 개인적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올해 3회를 맞는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는 지금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굳건히 믿어왔던 땅의 유동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살아낼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연결과 단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섬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한다. 또한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창조적 발현을 위해서 리미널 스페이스(liminal space)라는 비밀상적인 공간과, 창조의 흐름을 만드는 몰입의 장을 설계하고자 한다.

리미널 스페이스(Liminal Space)

리미널 스페이스는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 (Victor Turner)의 개념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계 너머의 비밀상적인 공간을 말한다.²⁾ 터너는 각종 부족 문화에서 존재하는 성인식이 한 개인이 어린이라는 정체성을 벗고, 기존의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사막, 야생,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공간을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불렀다.

이곳에 들어갈 때는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안의 규율과 정체성과 규범들을 내려놓게 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혼란함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실험하게 된다. 터너는 이런 과정은 전통적인 부족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 성장의 형태에서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리미널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끼리 일시적이지만 평등하고 영감 넘치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는 한다는 점이다.³⁾

원래는 인류학적인 용어이지만, 심리학 용어로 차용이 되면서, 칼 융과 같은 여러 심층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성장은 반듯이 기존의 정체성을 벗음으로서 경험하는 방향성 상실의 혼란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고, 이 공간과 시간은 재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번 레지던시가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연대와 결합을 실험해보는 공간이 되어,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돕는 중간단계의 리미널 스페이스로 풍요로운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창조적 흐름(flow)

창조적 흐름은 그 전후의 과정은 행위마다 다르지만, 몰입 상태의 경험은 거의 일치한다. 노력과 애씀이 사라지고, 행위자와 행위 사이의 거리가 사라진다.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열리며, 모든 것이 흐른다. 저절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느낀다. 화가는 붓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느끼고, 연주자는 음악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느낀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는 이 상태를 흐름(flow)이라고 불렀으나 한국어로는 몰입이라고 번역이 되어 소개되었다.⁴⁾ 그는 이 경험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경험 중 하나라고 보았다.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몰입의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서핑하고 비슷하다. 파도를 타기 위해서 서퍼는 날씨를 살펴야 하고, 파도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파도가 일렁거리는 곳까지 보드에 누워 팔로 열심히 노를 저어 나아가야 한다. 예측과, 노력과, 준비와 행운이 필요하다. 하지만 파도를 만나는 순간, 보드 위에 서서 균형을 잡고 흐름에 몸을 맡긴다.

2021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는 파도가 잘 일어나는 곳에 자리를 만들어, 파도까지 헤엄쳐 나가게 돕고자 한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자리를 깔기도 하지만, 결국 파도를 타는 것은 참여자 몫이다.

2) Victor Turner, "Liminality and Communitas," in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Chicago: Aldine Publishing, 1969), pp. 94-113

3) Turner, Victor. "Liminal to Liminoid, in Play, Flow, and Ritual: An Essay in Comparative Symbolology." *Rice Institute Pamphlet - Rice University Studies*, 60, no. 3 (1974) Rice University: <https://hdl.handle.net/1911/63159>.

4)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몰입 (flow)』, 한울임, 2004

전체 일정

2,3,4월

세부사업계획수립

5월

참가자(멘티) 모집 및 홍보
5월 10일 ~ 6월 24일



사전 설명회 5월 28일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재단 유튜브 채널)

6월

심사 및 선정
6월 25일 ~ 7월 1일

- 서류심사: 6월 25일
- 서류합격자 발표: 6월 28일
- 면접심사: 6월 30일
- 최종참가자 발표: 7월 1일

7월

오리엔테이션 7월 7일

사전현장답사 7월 12일 ~ 13일



사전강의 7월 14일 ~ 16일

8월

고립레지던시 8월 2일 ~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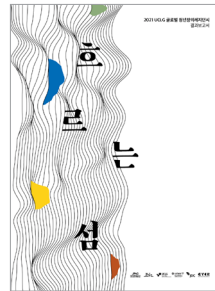


성과공유회 8월 28일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재단 유튜브 채널)

9월

결과 보고서



PARTICIPANTS

총괄디렉터



정은혜
대한민국

생태예술가
에코오롯 디렉터
시카고미술대학 미술치료 석사

멘토



이혜영
대한민국

작가
<희망을 여행하라> 저자
세대를 잇는 기록 대표



이진욱
대한민국

음악감독
제1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작곡상 수상
제주 해녀의 부엌
-부엌 이야기 음악감독

멘티

제주 외 8개국 참가
브라질,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스위스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참가자 24명은 제주 4지역에 6명씩 팀 구성
팀 구성은 내국인, 외국인 비율, 전공분야, 숙소 특성에 맞는 남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

가시리 팀

Olimov Bekhzod
우즈베키스탄 / 기획, KAIST AI

송해민
대한민국(제주) / 뉴미디어 아트

강준혁
대한민국(제주) / 미술

Carissa Faith Potts
미국 / 스토리텔링

Ola Océanne Emilola
스위스 / 사진, 영상

김가희
대한민국(제주) / 패션, 실공예



가파도 팀

Lin Junrui
중국 / 사진

박현지
대한민국(제주) / 조경

강연지
대한민국(제주) / 미술

Kim Anastasiya
우즈베키스탄 / 영상, 기획

김상훈
대한민국(제주) / 사진

Allison Kaley Deptula
미국 / 미술





유니박
미국

생태건축가
파머컬처 전문가
버지니아테크 건축학 전공



베른트 할프헤르
독일

조각가, 교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 교수
독일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석사
개인전: 사비나미술관(2015),
세화미술관(2017)



교래리 팀

이은정

대한민국(제주) / 퍼포먼스

Em Milana

우즈베키스탄 / 기획, 홍보

신서

대한민국(제주) / 미술

장예라

대한민국(제주) / 일러스트

Ang Tricia Kai Wei

싱가포르 / 미술

Julia Maurer Morelli

브라질 / 사진, 미술

비양도 팀

Do Minh Hanh

베트남 / 기획

유현상

대한민국(제주) / 음악(기타)

신현정

대한민국(제주) / 기획

문영섭

대한민국(제주) / 건축, 영상

Kaia Vereide

미국 / 미술, 페이퍼커팅

Victoria Amadin

나이지리아 / 음악(노래)



PROGRAMS

오리엔테이션

개요

- 일시: 2021. 7. 7.(수) 14:00 ~ 16:15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 진행방식: 동시통역
- 참석자: 키노트 강사(문경수, UCLG), 운영위원, 멘토, 참가자 24인
- 내용: 운영진 인사, 참가자 자기소개, 키노트강의, 추후 일정 등

프로그램 일정

구분	시간	세부
오프닝	14:00 ~ 14:02	박희정(JFAC)
인사	14:02 ~ 14:05	이승택 이사장(JFAC)
	14:05 ~ 14:08	Jordi Pascual(UCLG)
	14:08 ~ 14:20	운영위원(4), 멘토(4)
	14:20 ~ 14:45	참가자(24)
휴식	14:45 ~ 14:50	휴식
키노트 강의	14:50 ~ 15:30	문경수 대장
	15:30 ~ 15:35	휴식
	15:35 ~ 15:55	Marta Lobet(UCLG)
사전안내	15:55 ~ 16:05	박희정(JFAC)
	16:05 ~ 16:15	멘티 질문

키노트 강의

· 문경수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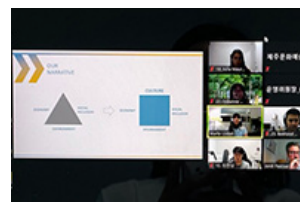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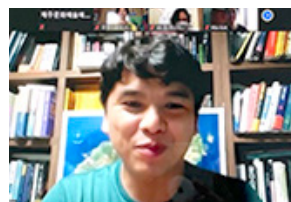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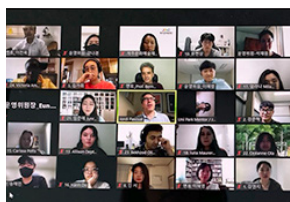


국내 1호 과학 탐험가
2010년 아시안 최초 NASA 우주생물학
그룹과호주 탐사
JTBC<효리네민박>, tvN<어쩌다 어른>,
EBS<세계테마기행> 등 출연

· Marta
Lobet



UCLG 문화분과위원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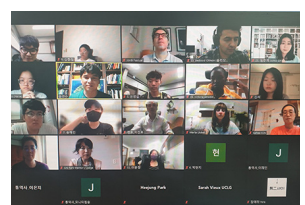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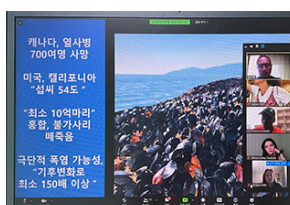
사전강의

- 개요
- 일시: 2021. 7. 14.(수) ~ 2021. 7. 16.(금)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 진행방식: 동시통역
 - 참석자: 강사, 멘토, 참가자(멘티)
 - 내용: 지역 문화와 역사, 환경, 소통 등

프로그램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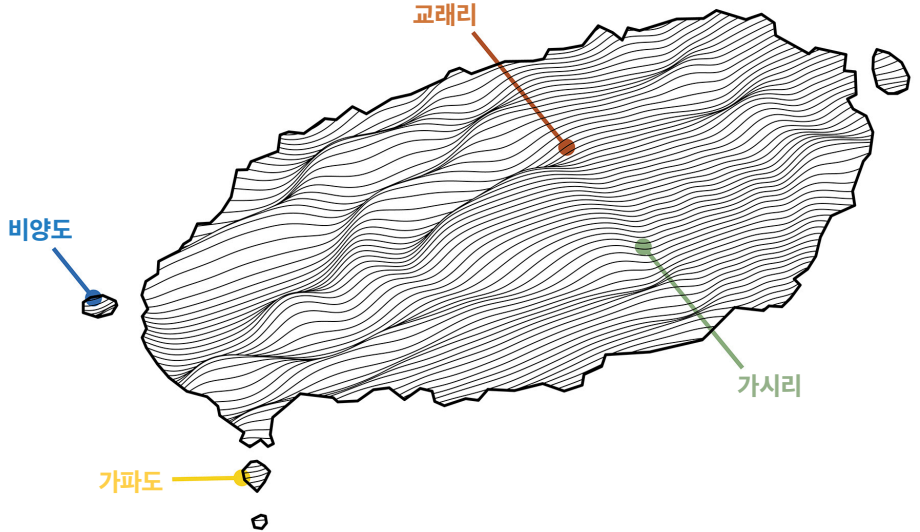
시간	7월 14일(수)	7월 15일(목)	7월 16일(금)
10:00 ~ 10:40	윤상훈 Sanghun Yoon 제주 바다와 기후위기	한진오 Jinoh Han 제주도 무속과 신화의 이해	
11:00 ~ 11:40	박지선 Jisun Park 기후변화와 기술사회에 따른 예술가들의 예술적 방법론	정신지 Sinji Jung 스쳐가는 만남의 기록	
13:00 ~ 13:40	고광민 Gwangmin Goh 제주도 풍토와 삶		
14:00 ~ 14:40	압둘와합알무함마드아가 Abdulwahab Almohammad Agha 보호와 소의 사이에 있는 난민	*이혜영 Hyeyoung Lee	
15:00 ~ 15:40	*이경식 Kyungsik Lee 소통게임	*이진욱 Jinuk Lee	*정은혜 Eunhae Jung 예술적몰입과 스트레스
16:00 ~ 16:40		*베른트 할프헤르 Bernd Halbgerr	
17:00 ~ 17:40	전용문 Yongmoon Jeon 유네스코가 반한 제주 화산섬 이야기	유니박 Uni Park	

* 멘티 24명 전체 수강 프로그램



고립레지던시

장소



제주에서 4박5일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고립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총 4곳의 장소에서 6명의 멘티가 팀을 구성하여 창작활동을 진행하였다. 비양도, 가파도, 가시리, 교래리(돌문화공원)는 제주도내 관광지에서 다소 고립되면서 제주의 문화, 환경, 지리, 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탐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비양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딸린 섬으로 면적 0.52km², 해안선 길이 2.5km의 화산섬이다. 한림항에서 북서쪽으로 5km, 협재리에서 북쪽으로 3km 해상에 자리잡고 있다. 섬 모양이 타원형으로 중앙에는 비양봉이 위치해있고, 그 외에 기암괴석들이 해안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 비양도는 화산 지질층 및 화산쇄설물 등 화산의 흔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화산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섬이다.

가시리

제주시 표선면 서북구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 면적은 56.018km²로 표선면에 속하는 여섯 개 법정리 가운데 가장 넓다. 야초지가 풍부하여 목축업이 활발하고 주요 관광자원으로 약 10km 길이에 달하는 유채꽃길과 제주의 목축문화를 볼 수 있는 조랑말박물관이 조성되어 있다.

가시리 예술인창작지원센터 2010년 10월 13일 개관하여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이 입주하여 예술 활동을 펼쳤다. 개인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가시리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 모두가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넣는 문화예술공간이다.

가파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5.5km 떨어진 제주도 부속 섬 중 네 번째로 큰 섬으로, 마라도의 2.5배 크기의 작지 않은 섬이다. 총면적 0.9km², 해안선 길이는 4.2km, 최고높이가 20.5m에 불과한 아주 평탄한 지형으로 봄이 되면 청보리밭이 장관을 이루는 섬이다.

가파도 레지던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2021년부터 운영하는 국제 레지던시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예술가들은 가파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제주의 문화 속에서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작 공간이다.

교래리

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은 100만평의 대자연 속에 탐라목석원장이 평생 모은 돌 2만점을 기증하여 21년간 조성한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이다. 제주 생성과 제주인류문화의 뿌리가 되어온 돌문화, 설문대할망신화, 민속문화를 집대성한 역사, 문화 공간이다.

교래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은 돌문화공원에 근접하여 전국에서 유일한 곳자왓 생태체험 휴양림으로, 난대와 온대의 식물들이 함께 자라는 제주 자연생태를 관찰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이다.

전체 일정

2021. 8. 2.(월)
~ 2021. 8. 6.(금)

시간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08:00 ~ 10:00	제주국제공항 도착	아침식사			
10:00 ~ 12:00	각 레지던시 출발	팀별 예술활동			
12:00 ~ 13:00	레지던시 도착 및 중식				
13:00 ~ 15:00	방배정 및 매니저 미팅				
15:00 ~ 18:00	멘토링				제주국제공항 이동 > 공항 도착 후 해산
18:00 ~	저녁식사				

멘토링 일정

팀/지역	Day 1	Day 2	Day 3	Day 4
비양도	베른트 할프헤르	유니박	이진욱	이혜영
교래리	유니박	베른트 할프헤르	이혜영	이진욱
가파도	이진욱	이혜영	베른트 할프헤르	유니박
가시리	이혜영	이진욱	유니박	베른트 할프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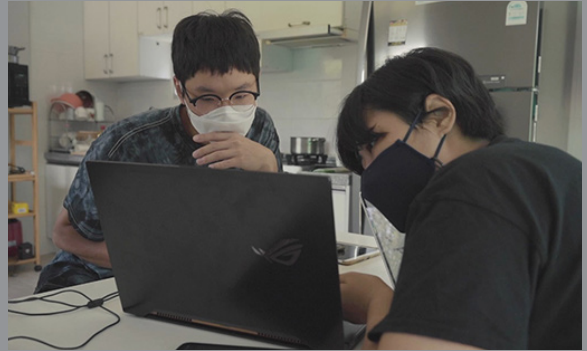
제주 4지역(가파도, 비양도, 교래리, 가시리)에 6명의 참가자와 이들을 운영, 통역 지원해주는 매니저가 1명씩 배치되었으며, 멘토가 한 지역에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머물며 멘토링 진행



PROGRAMS

고립레지던시

가시리





고립레지던시

가파도





고립레지던시

교래리





PROGRAMS

고립레지던시

비양도





성과공유회

- 행사일정: 2021. 8. 28.(토) 13:00 ~ 15:50
- 장소: 캠퍼(가파도 레지던시 코워킹 스페이스)
- 행사명: 2021 제3회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성과공유회
- 행사구성: 운영진 인사말, 팀별 결과물 발표 및 공유
- 운영방식: 온·오프라인 행사 진행(행사일 유튜브 중계)



유튜브 영상 아카이브

- 한국어 번역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V0_kfa5cXo&t=9290s
- 영어 번역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x19yplLV3w&t=9624s>



프로그램 일정

구분	시간	내용	참여자	비고
준비	준비 및 리허설			
	08:00 ~ 12:00	[준비] 행사 준비 세팅		
	12:00 ~ 13:00	[리허설] 성과공유회	동시통역, 줌 참여자 등	
세션1	환영 및 인사말			
	13:00 ~ 13:05	[영상] 데일리 영상		video
	13:05 ~ 13:06	[안내] 오프닝 멘트	박희정(JFAC)	offline
	13:06 ~ 13:08	[영상] 축하 인사	문대림 이사장(JDC)	video
	13:08 ~ 13:10	[인사말] 환영 인사	이승택 이사장(JFAC)	zoom
	13:10 ~ 13:14	[영상] 축하 인사	가파리, 비양리, 가시리 이장	video
	13:14 ~ 13:15	[인사말] 운영진 인사	총괄디렉터, 멘토	zoom
	UCLG 문화분과위원회			
	13:15 ~ 13:25	[강연] Why culture deserves to be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Jordi Pascual	video
	13:25 ~ 13:40	[강연] The UN Agenda 2030 and the main goals and targets that are related to culture	Marta Llobet	video
13:40 ~ 13:45	휴식			
세션2	멘티 결과물 발표 및 피드백			
	13:45 ~ 13:51	[영상] 멘티 인터뷰 영상		video
	13:51 ~ 14:16	[발표/피드백] 가시리 팀	강준혁 / 멘토	zoom
	14:16 ~ 14:41	[발표/피드백] 가파도 팀	Kim Anastasiya, 박헌지 / 멘토	zoom
	14:41 ~ 15:06	[발표/피드백] 교래리 팀	Julia Maurer Morelli, 이은정 / 멘토	zoom
	15:06 ~ 15:31	[발표/피드백] 비양도 팀	Victoria Amadin, 문영섭 / 멘토	zoom
	마무리			
	15:31 ~ 15:35	[소감] 행사 소감	멘티	zoom
	15:35 ~ 15:39	[마무리] 마무리 소감	정은혜 총괄디렉터, 멘토	zoom
	15:39 ~ 15:40	[종료] 마무리 멘트	박희정(JFAC)	offline
15:40 ~ 15:50	[영상] 브이로그 영상		video	

팀별 주제 개요

각 팀별 1~2개 소그룹으로 나눠 제주의 자연과 문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지역 상생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기획, 시각,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결과물 발표

가시리 팀

발표자 강준혁

팀원 Olimov Bekhzod, 송해민, 강준혁, Carissa Faith Potts, Ola Océanne Emilola, 김가희

주제 주관적 관점으로 본 가시리마을

창작결과물

- Gasiriture(Lidar scanned + 3D sculpting) / 3D조각기획, 영상 2
- Gasiri at a Glance(Photograhly + AI) / 영상 1

가파도 팀

발표자 박현지

팀원 Lin Junrui, 박현지, 강연지, Kim Anastasiya, 김상훈, Allison Kaley Deptula

주제 가파도 식물일지 / A Journey through GAPADO

창작결과물

- 가파도 식물 수집 및 재해석 / 사진, 영상 4
- 가파도 / 홈페이지, QR코드 제작

교래리 팀

발표자 Julia Maurer Morelli, 이은정

팀원 이은정, Em Milana, 신서, 장예라, Ang Tricia Kai Wei, Julia Maurer Morelli

주제 우리는 바람을 함께 품었다.

창작결과물

- 보이지 않는 것·정신·빈 틈·숨을 쉬다·관계 / 퍼포밍 영상 3

비양도 팀

발표자 문영섭, Victoria Amadin

팀원 Do Minh Hanh, 유현상, 신현정, 문영섭, Kaia Vereide, Victoria Amadin

주제 관점, 새로운 몸, 소통

창작결과물

- 오감으로 비양도 섬을 느끼며 노래 창작 / 음악, 영상 2

성과공유회

가시리 팀
소그룹 1

Gasiriture
(Lidar scanned + 3D sculpting)
강준혁, 송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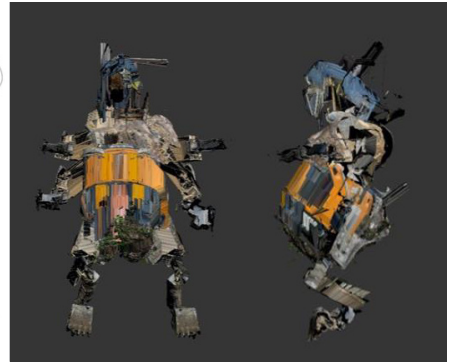
가시리의 자연(풀, 나무, 꽃, 돌 등) 개체를 먼저 3D로 스캔하여 재조합하고 하나의 생명체로 창작하는 방식과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관찰하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방식의 두가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Gasiriture> 영상, 1분6초, 2021

첫 번째 창작물은 캥가(Kangaroo Guardian)라고 제주 민간신앙 중 하나인 할미당이라는 제주 전통적 장소 앞에 서 있는 포크레인을 여성을 상징하는 수호자 이미지로 창작한 오브젝트이다.

두 번째는 가시리 보살님(Aka Goddess of Gasiri)라고 천수관음보살에 팀원들의 신체 일부분과 가시리에 있는 여러 개체들을 조합하여 만든 창작물이다.



<캥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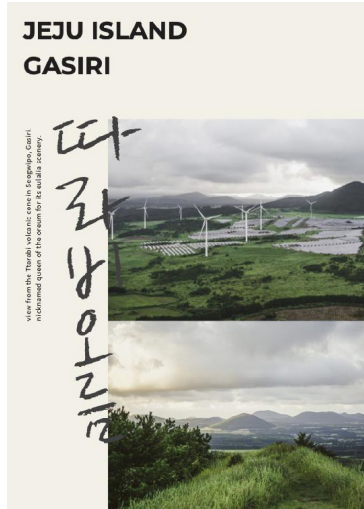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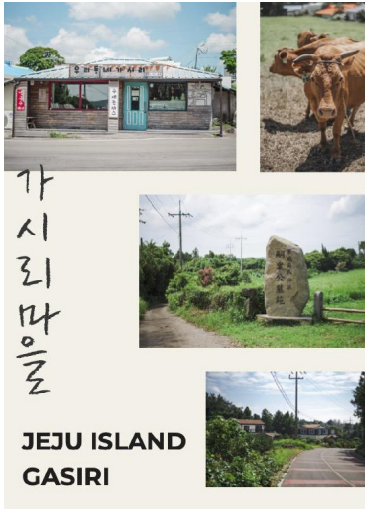


<가시리 보살님>

PROGRAMS

가시리 팀
소그룹 2

Gasiri at a Glance
(Photography + AI)
Ola Oceanne Emiilola, Carissa Faith Potts



가시리를 여행하는 동안 지역 고유의 공동체 의식에 영감을 받고 좋은 추억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흐려지지만 더욱 가치 있음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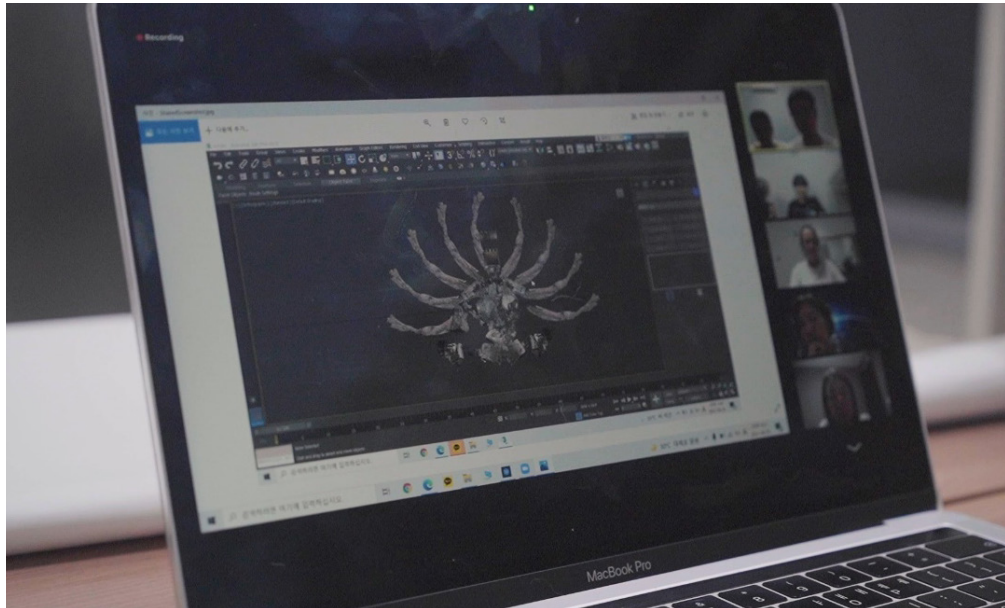
사진과 시를 병행하여 작업하였으며, 비디오는 희미해지는 기억들의 나열을 상징한다.

팀이 관통하는 주제는 기존에 제시했던 가시리의 상징물, 정보들이 있었지만 팀원들의 주관적 관찰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Gasiri at a Glance> 영상, 38초, 2021

가시리 팀



멘토 피드백

GASIRI

이혜영

예술과 IT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한 팀이었다. 포크레인을 모티브로 강력하고 흥미로운 할망당의 수호신을 표현해냈고, 시를 이용해 사라져가는 제주의 자연을 표현한 호소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냈다. 결과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천으로 만다라를 짜는 공동작업은 팀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고 있었다. 따뜻한 팀워크가 돋보였다.

이진욱

가시리팀의 작업물은 팀원들이 상상하는 가시리의 이미지가 잘 담겨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멘토링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있는 더 다양하고 확장된 예술적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가령, 가시리 면 사무소 앞의 공사하는 모습, 가시리에서 발생한 모든 소리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가시리의 모습을 디자인, 일러스트, 멀티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멘티들의 눈으로 재해석된 한 아트웍으로 담았다. 그 결과 여러 개의 장르로 만들어진 가시리의 작업물들에는 참가자 본인들의 시선이 담김으로써 가장 감동적인 아트웍이 되었다.



유니박

AI 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 혼합이 흥미로웠고, 오름을 함께 올랐는데 영상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기억, 해석에 따라 기억이 달라지고 왜곡되는 것 흥미로우며, 만다라 작품 발표는 못 봐서 아쉽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베른트 할프헤르

네 번째 가시리팀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성격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복잡한 팀이었다. 가파도팀을 생각나게 하기도 했지만, 가시리팀은 순수미술보다는 문화적 관심에 더 중점을 두었다.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이번 프로젝트들의 핵심이기도 했다. 이 점이야말로 현재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주제이기도 하다. 짧은 프로젝트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가시리팀의 최종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정은혜

가시리는 제주 전통의 문화가 이어 내려오고 있는 제주 중산간에 위치한 마을이다. 가시리 팀은 마을의 신당에서 영감을 받아 이 마을의 여러 부분들과 상징들을 가지고 창조적인 작업을 했다. 이 팀은 미디어 아티스트, 섬유 예술가, AI 전문가, 커뮤니티 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있었으며, 그들이 만든 결과물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과 전통을 버무려 그들만의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다각적이고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성과공유회

가파도 팀 소그룹 1

가파도 식물 수집 및 재해석 박현지, Lin Junrui, 강연지

각자의 방법으로 탐험하고 수집하여 가파도의 키워드를 도출하여 가파도 식물일지와 A Journey Through GAPADO 두가지 주제로 가파도에 몰입하였다. 가파도 식물일지는 조경학도 박현지, 포토그래퍼 Lin Junrui, 일러스트레이터 강연지가 서로다른 계기를 가지고 있지만 식물이라는 공통관심사를 찾아내었다. 식물의 다양한 모습, 채집,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가파도에 몰입한 작품이다. 가파도 내 장소와 오브제를 사용하여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파도를 도출해내었다.



박현지

내면의 기억을 표현한 작품이다. 가파도에서 인상 깊었던 노을의 기억을 표현했으며 식물의 색깔과 촉감에 신경 써 배치하였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기억에 집중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흐려지고 그 끝에 감정이 남는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상자 위에 고정되지 않은 식물들은 바람이나 주변 요소들의 의해 점점 흐려진다. 그 뒤에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아무런 색이나 질감이 없는 그림자가 있다. 그렇게 나의 기억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식물들과 나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자를 한번에 사진에 담아 작품을 완성하였다.



Lin Junrui

가파도에서는 식물들의 여러 생명 단계를 볼 수 있다. 같은 시점에서도 그들은 빠르거나 느리며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타임라인에서 살아가고 결국 하나의 생명 순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식물의 형태 및 존재하는 시공간을 재구성하였다. 철학자 Hans-Georg Gadamer는 <The relevance of the beautiful>에서 "예술은 특별한 시간 체험을 선사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머무르는 방법을 알게 된다. 아마도 이런 체험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에 가장 잘 해당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강연지

매일 아침 여섯 시부터 여덟 시까지 가파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주한 것들을 기록했다. 편평한 땅 위에 낮게 자라난 나무와 풀, 그림자 없이 붉게 물든 새벽, 바람을 견뎌내는 낮은 지붕과 돌담을 그려냈다. 투명한 상자 속에 붙여진 그림들은 가파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기도 하다.



가파도 팀
소그룹 2

가파도

Kim Anastasiya,
김상훈,
Allison Kaley Deptula

가파도 주민들과 관광객들 간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단순히 청보리, 바다, 꽃 구경 등 경치 관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파도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와 놀라운 역사를 함께 탐색하는 관광을 제안하였다. 가파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패널 속에 일러스트레이션, 플랜트월, 서라운드 패널 등 예술적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 단순히 보는 것으로 알 수 없는 가파도의 다양한 정보들을 QR코드에 담아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지역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몰입을 경험하게 한다.





가파도 팀



멘토 피드백

GAPADO

이혜영

이 팀이 보여준 작업에 대한 열정은 놀라웠다. 열정은 때로 불협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과정은 중요한 경험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가파도 식물일지는 조경학과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가 협업한 아름다운 결과물이었고, 가파도가 관광지로 부상하는 데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주민들의 삶과 자연을 관광정보로 표현한 작업은 좋은 시도였다.

이진욱

가파도 팀은 멘티들의 의견이 매우 활발하게 소통되었던 팀이었다. 팀원들은 조경과 회화에 관심이 많았다. 또 가파도의 지형을 파악하고 섬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집중했다. 식물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각자의 관점 들을 보태어 아트웍을 만들었다. '가파도에 서식하는 식물들이 왜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녀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가파도를 특별한 공간으로 인지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섬을 소개하고 싶어했다. 결과물은 QR 코드가 포함된 패널과 가파도 홈페이지는, 멘티들의 가파도에 대한 작업물이자 이들이 가파도에 남기는 하나의 선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유니박

가파도의 아름다움, 조경의 독특함, 에너지가 넘치는 팀이었다. 디테일에 관심이 많은 팀. 과학 연구소에 온 듯한 느낌으로 조경학에 대한 관찰, 탐험, 빛과 그림자의 시적 표현도 감명 깊었다. QR코드 작업물, 지역사회, 해녀, 주민들에 도움 되는 방향의 바람, 바닷물에는 재질 측면에서 유리 말고 다른 재질을 고민해야할 것 같다.

베른트 할프헤르

두 번째 가파도팀은 팀원 각자의 예술적인 입장에 많은 에너지를 쏟은 팀이었다. 그래서 개별 참가자들의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했지만, 어느 정도는 전체 팀의 그림의 통일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 참가자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팀의 특성으로 이해했다. 이 팀의 프로젝트 역시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은혜

가파도는 제주의 섬들 중에서 가장 낮고 평평한 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섬일 수밖에 없다. 한 그룹은 거친 환경에서 살아내느라 키 작고 강한 식물들은 모으고, 자르고, 그리고, 모으고, 촬영하는 등 다양한 시각적인 방법으로 탐구하였다. 다른 팀은 섬의 독특한 삶과 더불어, 개발로 인해 변해가는 섬에 관심을 가졌다. 로컬과 여행자들의 경험을 잇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여행자들이 잘 보는 위치에 QR 코드를 놓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섬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작업이었다.

성과공유회

교래리 팀

보이지 않는 것·정신·빈 틈·숨을 쉬다·관계

이은정, 신서, 장예라, Ang Tricia Kai Wei, Julia Maurer Morelli, Em Mil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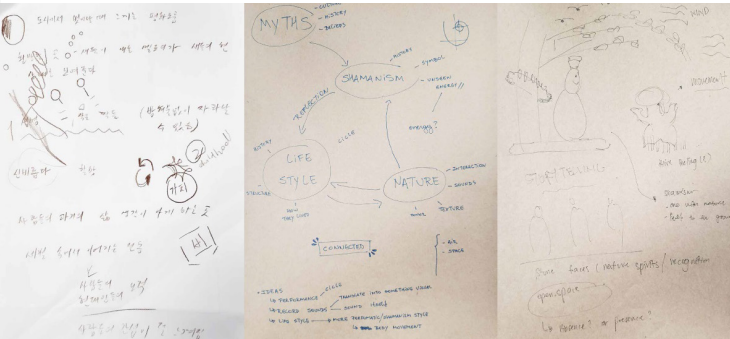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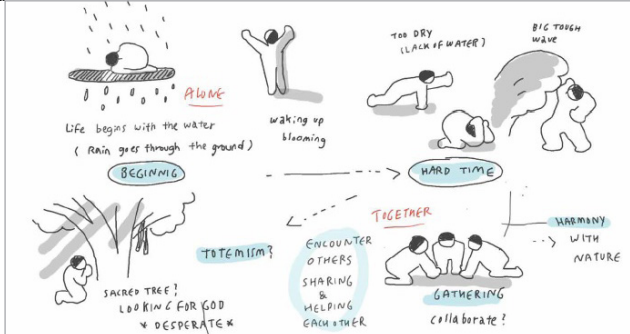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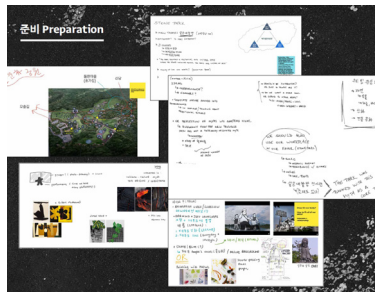


브레인스토밍

돌담의 빈 공간, 제주 배경, 돌문화공원을 탐색하며 각자 방식의 브레인스토밍을 공유하고 취합하였다. 창작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월정리해변, 만장굴 등 다양한 돌문화공원 인근 지역을 탐구하면서 압박에 대한 자유로움과 영감을 받으며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하였다.

제약

고립된 장소,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존중을 위한 하나의 약속 등이 단순한 한계, 제한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활용해서 창의적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 팀 퍼포먼스를 하면서 반영, 넓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자유로운 움직임,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교래리 팀

협업

팀리더 없이 과정을 즐기며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자발적으로 3명 퍼포머, 1명 카메라, 1명 기획, 1명 사운드로 분업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퍼포먼스를 위해 함께 직접 삼베옷을 만들기도 하였다.



퍼포먼스 사진 컨셉

보이지 않는 것(Unseen), 정신(Spirit), 빈틈(Empty space), 숨을 쉬다(Breathe), 관계(Relationship)
설화, 제주의 순환, 생태에 대한 주제를 도출하고 돌담의 빈 공간이나 영혼, 과거의 스토리 등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교래리 팀



멘토 피드백

GYORAERI

이혜영

이 팀은 영감이 가득했다. 자연과 시간과 교감하는 에너지가 이들 사이에 넘실대고 있었다. 기획, 영상, 사운드, 퍼포밍의 역할을 나누어 쉽지 않았을 작업을 한팀으로 이루어 냈다. 초가돌집의 시간과 공간, 연결을 표현한 퍼포먼스와 바람과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퍼포먼스는 하나로 연결된 그룹의 힘이 돋보였다.

이진욱

재능이 많고 펼치고자 하는 꿈도 많은 멘티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멘티들은 제주 돌문화공원의 배경을 바탕으로 작업했다. 이들은 토착화된 제주도의 탄생 신화와 제주도의 돌담에 관심이 높았다. 팀 구성원들은 이러한 작업배경과 관심사를 창의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만든 퍼포먼스로 재현했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 아트웍의 확장성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였다. 멘티들의 시선에서 상상된 제주의 오브제는 독창적이고 특별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만든 삼베옷 퍼포먼스는 예술이 본질적으로 갖고있는 제의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이에 제주에 대한 그들의 시선과 관점을 결합해 특별한 양식을 보여주었다.



유니박

세밀한 관찰력 인상적, 자연 재질이라 던지 전통적 건축방법이 잘 드러난 결과물. 보이지 않는 분위기, 감정 등이 잘 나타났다.

3개 퍼포먼스 다 감명 깊었다.

베른트 할프헤르

세 번째 제주돌문화공원은 대화와 논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한 팀이다. 강력한 예술적 목적성은 최종 발표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 이 팀이 프로젝트의 예술적인 언어(표현의 형태)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훨씬 강력한 프로젝트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프로젝트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정은혜

화산섬인 제주의 모든 것들은 돌 위에 놓여 있다. 마을도 숲도 돌 위에 있다. 그렇다보니 제주도에는 돌에 관한 많은 신화들이 있다. 돌문화 팀은 제주도의 현무암과 돌담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했다. 돌과 돌 사이의 구멍에서 바람과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결을 찾고,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돌담의 강인함이 이 비어있는 구멍으로 인한 것임에 감탄했다. 이 빈 공간들에 영감을 받아, 강인하면서도 비어있는 힘에 대한 퍼포먼스 작업을 하였다. 즉흥적이면서도 깊은 호흡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작업이었다.

성과공유회

비양도 팀

오감으로 비양도 섬을 느끼며 노래 창작

Do Minh Hanh, 유현상, 신현정, 문영섭, Kaia Verceide, Victoria Amadin

각자의 재능에 연결하여 작업 방향을 설정하고, 비양도에 고립되면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모든 감각으로 섬을 체험하고자 했다. 다양한 국적, 전공의 팀원들과 소통하고, 문영섭의 안내에 따라 플로깅 워크숍을 통해 해양쓰레기라는 전세계적인 문제를 접했다. 카야(Kaia)의 안내에 따라 진행한 페이퍼커팅 워크숍에서는 비양도에 경험한 배, 해초, 유대감을 나타내는 작품을 도출해냈다. 바다에 뛰어든거나 섬의 소리를 채집하고, 다양한 해산물을 맛보고, 비양도 해녀할망의 이야기 듣고, 마을 신에 대한 역사를 탐구하며 섬을 만나고, 맛보고, 듣고, 보고, 느낀 섬을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영상 Hanh Do, 문영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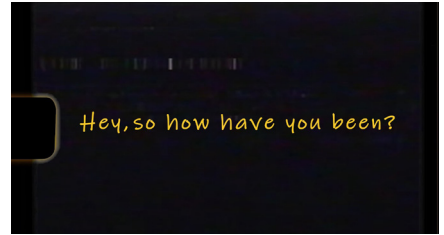
편집 Hanh Do

작곡 유현상

노래 Hanh Do, 문영섭, 신현정, 유현상,
Victoria Amadin, Kaia Vereide



비양도 팀



How have you been?

낮선 사람들과
배를 타고 떠난 여정이
하루 하루 쌓이며 이별이 다가와
서둘러 저물어가

자전거를 타고
햇살과 바람 또는 비를 맞아
변덕스런 날씨도 나는 즐거워서
내일을 미룬다

Career woman chooses island
when she is born again and again
Amazon in the sea is a friend of sea turtles
Hey girls, don't be so greedy ya
Just jump to the sea be happy

작은 섬은 이제 커다란 세상
Rain and trash become good
memories to me

서툰 대화들이
서서히 틈을 당겨왔어
하지만 벌써 작별인사 나눠야해
Goodbye my mentor



<How have you been?> 뮤직비디오, 6분51초, 2021

비양도 팀



멘토 피드백

BIYANGDO

이혜영

이 팀은 긍정적이고 맑은 에너지로 빛나고 있었다. 섬의 주민들, 특히 해녀할머니를 인터뷰하고, 바다쓰레기를 줍고, 섬의 역사와 신앙을 배우며 비양도를 이해하고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 과정을 담아 만든 노래와 영상은 풋풋하고 순수한 결과물이었다.

이진욱

비양도 팀은 유쾌한 멘티들이 모인 그룹이었다. 오감을 통해 섬을 느끼고 싶어했으며, 멘토링시간 중에 멘티들의 열정으로 안에서고 하고 싶어하는 작업들이 넘쳐났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팀이었기에 비양도의 환경 쓰레기를 예술과 연결시켜 보려 했다. 그들이 만들어낸 작업물은 비양도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소리를 통한 예술을 상상한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얻은 섬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그들이 심도있게 나눈 환경 보호에 대한 아이디어와 예술적 상상력의 결합은 결과물에서도 잘 표현 되었다.



유니박

재능과 스킬이 잘 어우러진 노래로 많은 감명을 받았다.

존재에 대한 내용, 일상성에 대한 내용, 유대감, 아름다움을 담아낸 노래였다.

베른트 할프헤르

제 첫 번째 팀은 비양도팀이었다. 이 팀은 해양 오염이라는 전 세계적 생태계 문제에 대해 뜨거운 열정과 사회적 순간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접근한 다층적이고 공감하는 팀이었다. 콘텐츠의 단순 명쾌함과 아이디어의 직설적인 실행이 인상적이었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도 용감하고 훌륭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간의 제약을 고려할 때, 최종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저에게도 흥미로운 연구였다.

정은혜

비양도는 주민 대부분이 해녀이거나 해녀의 가족인 아주 작은 섬이다. 이 작은 섬에서 비양도 팀은 지역주민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이 섬의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뮤직 비디옌을 제작하였다. 이 노래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고 커지는 세상을 노래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를 발견하는 기쁨을 노래한다. 이것은 2021년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가 바라던 모든 것이었다.

마무리 글

정은혜
총괄디렉터

2021년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는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다. 가장 더운 여름, 태풍이 불어오는 시즌이었고, COVID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흐르는 섬”이라는 주제를 걸고 제주도 출신 청년들과 해외에서 와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24명을 제주도로 초대하였다. 우리는 이 짧지만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집중도가 있는 창조적인 경험을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영감을 주는 환경을, 심지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레지던시를 기획하는 와중에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 주었다. 한계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 질문의 한 가지 대담으로, 6명이 한곳에 들어가 고립될 수 있는 4곳의 거점을 찾았다. 6명의 청년 참여자들과 1명의 매니저가 한 팀이 되어, 한 장소에 고립되는 구성이었다. 단 제주 문화, 시각예술, 음악, 생태건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멘토들은 4곳을 다니면서 그들을 모두 만났고, 이 모든 일들은 COVID의 강력한 규제를 지키며 진행되었다.

이 레지던시의 기간은 매우 짧다. 이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의 사전 강의와 워크숍을 준비하였다. 사전 강의의 주제들은, “제주 지질,” “제주 신화,” “바다 생태,” “제주 삶” 등이었으며, 좀 더 실천적인 영역으로 비언어 소통 워크숍과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강의와 워크숍들은 곧 있을 짧지만 집중적인 창조적인 시간을 맞을 준비였다.

이 레지던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들이 있었지만, 다음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가 GYCR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가이드가 되어 주었다.

1. 고립과 연결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단순히 서로에게서 거리를 두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거리 개념이 없는 사이버 상에서 연결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오히려 더 오래 함께 있게 되는 것이 거리두기의 특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사들이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취소되는데, 우리는 고립을 통한 더 깊은 연결을 추구하였다. 제주는 큰 섬과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지구에게 가장 강력한 경계인 땅과 바다의 경계이며, 고립을 통한 연결을 하기 위한 최고의 지리적 위치이다.

이러한 형식은 레지던시로는 실험적이지만,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여정이나, 삶의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이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완만한 선을 따라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홀로 황야로 보내지고,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와야 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다음 단계로 성장한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성인식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황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이들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유대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연결은 원래 속해있던 곳의 계급이나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없이 서로를 만난다. 이 관계는 대부분 짧고 이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깊은 자국을 남긴다. 이 레지던시에서 만나는 참여자들의 관계가 그랬으면 했다.

2.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디자인한다. 이런 구성의 행사는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라는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우리는 실패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논했다.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하고자 하는 것이 창조적인 것일 때 말이다. 안전한 게임만 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새로운 상상이 있을 수 없고, 신선한 관점이 있을 수가 없다. 창작을 한다는 것의 핵심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에 획을 긋는 것이고, 보물지도가 없이 보물을 캐는 것이며, '모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예술가의 길

예술의 힘은 놀랍다.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지니기 어려운 여러 감정들에 동시에 느끼게 하고, 상반된 감정들도 함께 지닐 수 있게 돕는다. 예를 들어, 흥분과 두려움, 익숙한 것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갈등 같은 것의 조합 말이다.

COVID-19가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이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 오고가는 가벼운 농담들이 있었다. SNS에서 스스로를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밝힌 사람이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다"라고 쓰고, 수많은 공감의 댓글이 달렸던 것이 기억난다. 드디어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보다, 집에 있기를 선호하고, 동굴로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어색한 사람이 더 잘 지내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COVID 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또 계속 되고 있다. 어쩌면 드디어, 창조적이고 비선형(non-linear)이고, 실패에 영감을 받는 예술가의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지도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단, 지금 여기가 어디고 내가 누군지 안다면 말이다.

10년 전에 제주도로 이주했을 때, 사람들이 위치를 설명하는 방식이 놀라웠다.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을 이야기할 때, 제주도에서는 산 쪽 또는 바다 쪽을 가르키고는 한다.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산 쪽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 사이 어디든 가능한데 말이다.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우리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아직은 산이 어디고 바다가 어디고, 이웃이 누구이고, 나는 그 사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방향을 찾는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루는 문맥이다.

GYCR 의 구조는 이러한 문맥을 만들고자 했다. 작은 곳에 머물면서, 참여자들은 서로와 관계맺음으로서, 내가 누군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았다. 참여자들은 서로라는 문맥에 깊게 관여하고 이 섬의 문맥에 깊게 영향을 받는다.

마무리 글

이혜영
멘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서로를 위함에 빠뜨릴 수 있는 전염병의 유행은 거꾸로 사람 사이의 온기가 주는 힘과 위로를 깨닫게 하고 갈망하게 만든 것 같다. 코로나 음성반응을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긴장감을 안고 시작된 청년예술가들과의 만남은 그래서 더 반갑고 소중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일정 가운데서도 한 그룹을 만나는 것은 하루뿐이어서 멘토들에게 이번 캠프는 매일 제주도의 깊은 숲에서 작은 섬으로 배낭을 매고 청년들을 만나러 길을 나서는 여행이었다. 하루하루 그룹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멘토의 역할도 날마다 달라지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첫날은 넓게 그물을 펴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어부가 되었다가, 방향을 찾은 그룹과는 깊은 대화를, 결과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그룹과는 멈추고 놀기를, 작품이 무르익은 그룹에게는 격려와 사랑을...

뜨거웠던 제주의 숲과 바다와 청년예술가들과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작은 씨앗이 되어 각자의 땅속에서 이 겨울 더운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이진욱
멘토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참여한 예술적 교류행사에 멘토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고 생각한다. UCLG에 참여한 예술가들과 나눈 멘토링 시간은 서로의 예술적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성장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 그리고 환경과 제주에 관련된 이슈들은 젊은 예술가들과 멘토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고,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제주와 소통하며 만들어진 소중한 시간과 기억으로 남았다.

사람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 UCLG를 통해서 제주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나누며, 또 소통하며 만든 시간들이 멘토와 멘티,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뜻깊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유니박
멘토

레지던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나의 총평은 프로그램 일정이 안타깝게도 단 4일뿐이어서 프로젝트에 더 깊이 몰입하기에 짧았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일정이 더 확대되어서 참가자와 멘토 모두에게 더 심도 깊은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놀랍고 기쁘게도, 최종 발표들을 검토해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한 제약과 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창조적인 과정과 실험을 격려했다.

여러 측면에서 나는 초점이 최종적이고 깔끔한 '예술 작품'보다는 과정 자체에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짧은 기간 동안에 참가자들이 때로는 다른 참가자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킨 것은 이런 종류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너지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베른트 할프헤르
멘토

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비록 시간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비평과 정교한 논의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젝트가 의심의 여지없이 성공적이었다. 결국, 그것이 성공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동시대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플랫폼을 구현해냈고,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 냈으며, 공동의 문화적인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만족도 조사

· 설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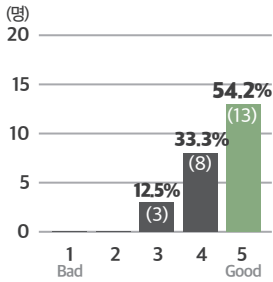
- 국내 12명(제주)

- 해외 12명(브라질1, 싱가포르1, 미국3, 베트남1, 중국1, 우즈베키스탄3, 나이지리아1, 스위스1)

사전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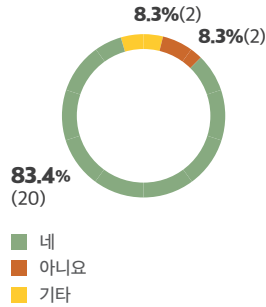
01.

당신은 사전강의와 워크숍
강의구성과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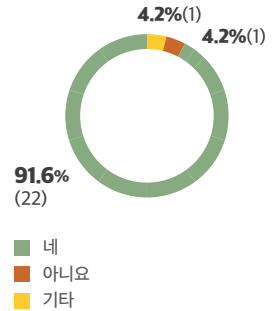
02.

사전강의는 고립레지던시와
창작물 창작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03.

사전강의의 강의 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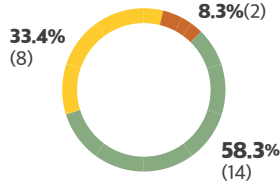
레지던시
만족도 조사

01.
고립레지던시 기간(4박5일)은
적절하였습니까?

- 네
- 아니요
- 기타

코로나 유행 기간에는 적절했지만
일주일 정도로 더 길면 좋겠다.

기간은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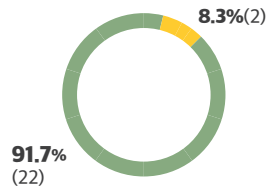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더 길면 좋겠다.

완성도 있는 결과를 만들기에는
부족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좋았다.

02.
고립레지던시의 팀원 인원수(6인)는
적절하였습니까?

- 네
- 아니요
- 기타

4-6인 더 많으면 괜찮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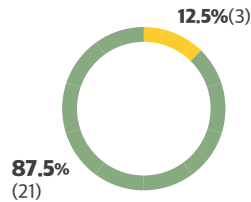


03.
고립레지던시의 매니저 수(1인)는
적절하였습니까?

- 네
- 아니요
- 기타

매니저와 통역이 따로 있으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

2인이 더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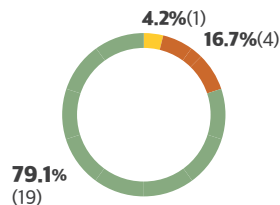


매니저 한 분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를 잘 도와주셨다. 하지만 우리가
두 팀으로 나뉘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향후에는 두 분의 매니저가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

04.
고립레지던시의 멘토 4인이 이동하여
멘토링하는 운영 시스템은
적절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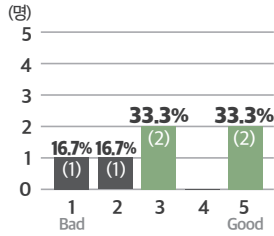
- 네
- 아니요
- 기타

4박 5일간에 4인의 멘토 운영보다 팀당 1~2 명의 멘토 운영이 더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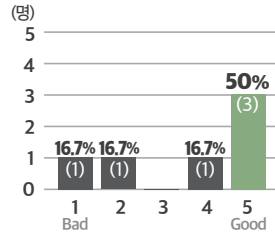


레지던시
만족도 조사
가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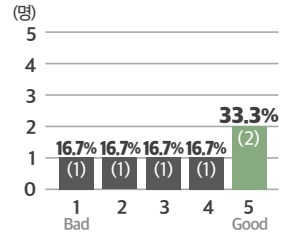
01.
고립레지던시 장소로
적절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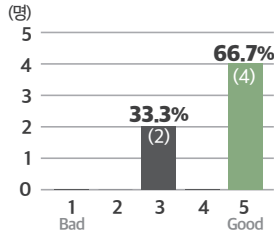
02.
고립레지던시 행사 진행중 제공된
음식은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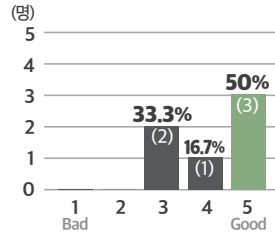
03.
고립레지던시 행사 진행중 제공된
작업실 환경은 만족스러웠습니까?



04.
고립레지던시 행사에 제공된 숙소와
서비스는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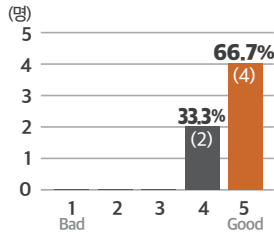


05.
전반적으로 가시리 레지던시는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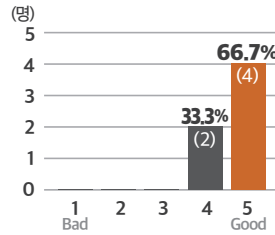


레지던시
만족도 조사
교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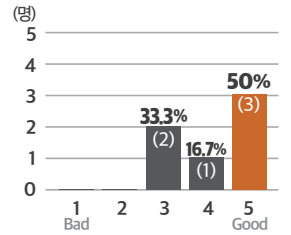
01.
고립레지던시 장소로
적절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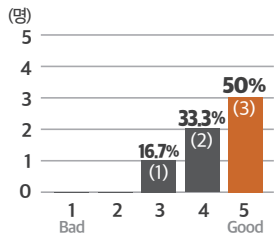
02.
고립레지던시 행사 진행중 제공된
음식은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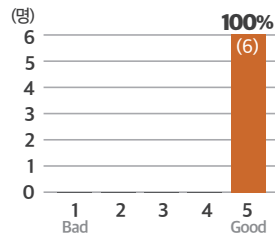
03.
고립레지던시 행사 진행중 제공된
작업실 환경은 만족스러웠습니까?



04.
고립레지던시 행사에 제공된 숙소와
서비스는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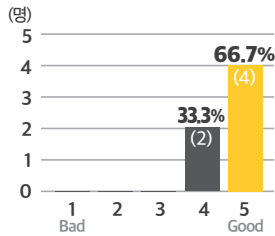


05.
전반적으로 교래리 레지던시는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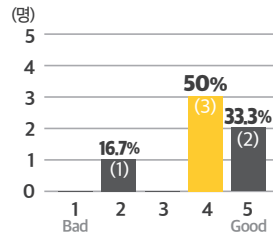


레지던시
만족도 조사
가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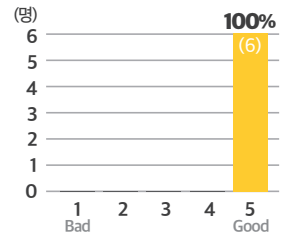
01.
고립레지던시 장소로
적절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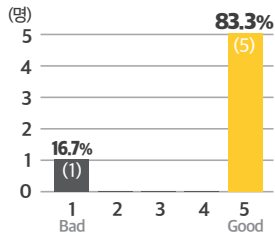
02.
고립레지던시 행사 진행중 제공된
음식은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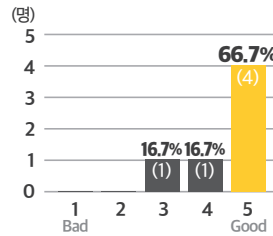
03.
고립레지던시 행사 진행중 제공된
작업실 환경은 만족스러웠습니까?



04.
고립레지던시 행사에 제공된 숙소와
서비스는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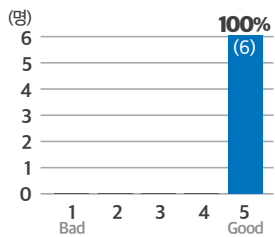


05.
전반적으로 가파도 레지던시는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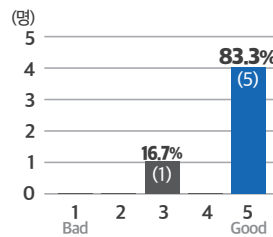


레지던시
만족도 조사
비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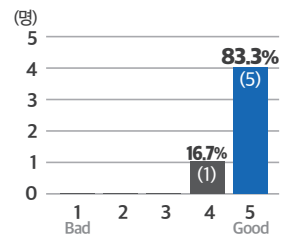
01.
고립레지던시 장소로
적절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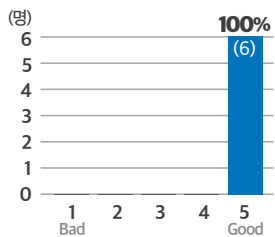
02.
고립레지던시 행사 진행중 제공된
음식은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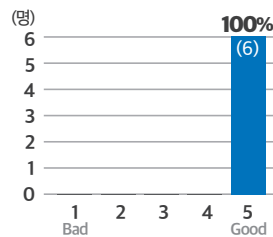
03.
고립레지던시 행사 진행중 제공된
작업실 환경은 만족스러웠습니까?



04.
고립레지던시 행사에 제공된 숙소와
서비스는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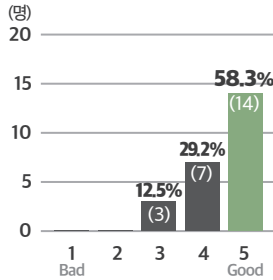


05.
전반적으로 비양도 레지던시는
만족스러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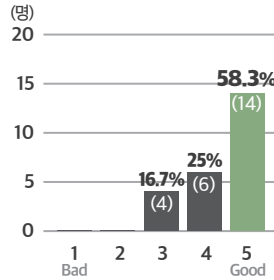


성과공유회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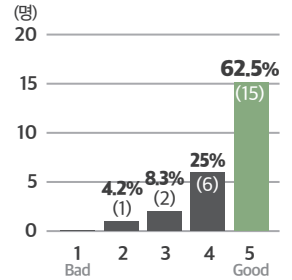
01.
성과공유회의 구성과 진행은
만족하셨습니까?



02.
성과공유회에서 멘토들의 피드백은
만족하셨습니까?



03.
2021 UCLG 글로벌 청년창업레지던시
성과공유회 전반적인 만족도는
무엇입니까?



04.
성과공유회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이 조금 아쉽다. 모두 고생이 많았다.

모든 팀이 최선을 다했다.

최종 발표가 이전 시즌들처럼 오프라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변경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고 가이드라인도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부 멘토들은 전혀 흡입을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았다. 뭔가를 계획할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라면 아마도 실생활에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의 비용과 자료에 대해 학생들이 고려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문제는 모두 나중에 생각할 일들이고, 개념 구상 단계에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성과공유회가 한번뿐이라서 아쉬운점이 있었고 여러번의 성과공유회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작업들이 있으면 좋았을거란 생각을 해보았다.

최종 발표의 순서가 짜임새 있었고, 다른 레지던시팀의 발표를 듣는 것도 흥미로웠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나 목표가 있었다면 작업을 시작하고 최선의 발표 형태를 준비하는 것이 더 쉽고 빨랐을 것 같다.

성과공유회가 1번이 아닌 여러번에 중간 공유회를 걸쳐 장기간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면 관찰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성과공유회도 매우 만족했다. 그러나 모든 멘토분이 말할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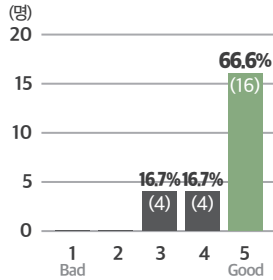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해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최종 발표를 했다. 하지만 발표 순서가 짜임새 있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송출되었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도 최종 발표를 볼 수 있었다. 멘토들의 피드백 시간이 짧았다. 우리가 개선할 점이나 다른 코멘트를 더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최종 발표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잘 발표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준비가 다 급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팀의 발표는 멘토들에게 다른 팀만큼 많은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최종 결과물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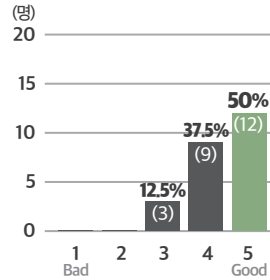
가능한 창의성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었고, 다른 팀의 발표를 듣는 것도 재밌었다. 피드백과 코멘트들도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더 작업을 하려고 한다.

통역 관련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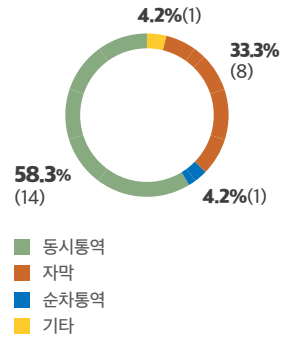
01.
2021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시 동시통역은 만족스러웠습니까?



02.
동시통역 관련 전반적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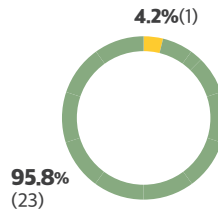


03.
내년 행사에서 통역은 어떠하였으면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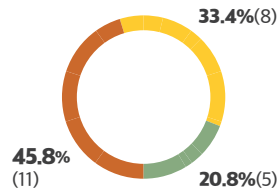
04.
본인의 외국어 실력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급 (원어민 수준)
- 중급 (기본회화 가능)
- 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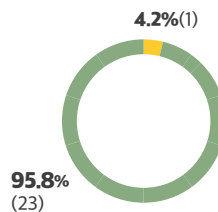
05.
행사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 네
- 아니요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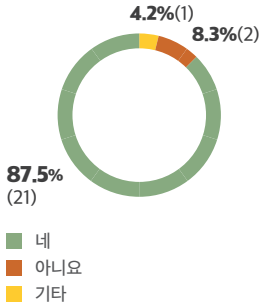
06.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에 있어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네
- 아니요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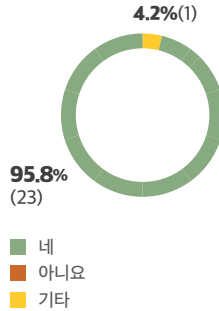


2021 UCLG GYCR
진행 및 안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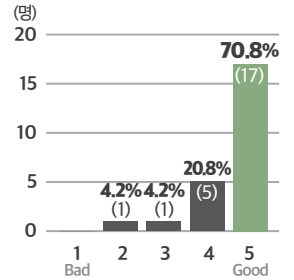
01.
2021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진행과 관련된 안내는 정확하고
친절하였습니까?



02.
2021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관련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조치 사항은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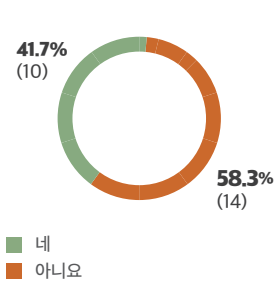


03.
2021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진행 및 안내 전반적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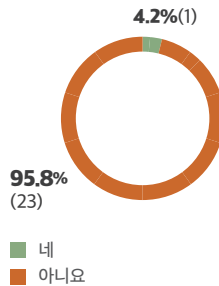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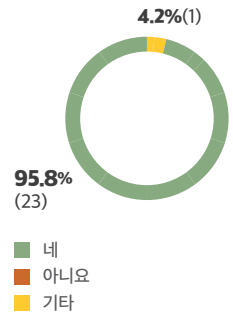
01.
행사 이전에 제주문화예술회관을
알고 있었습니까?



02.
행사 이전에 UCLG(지방정부연합)
기구를 알고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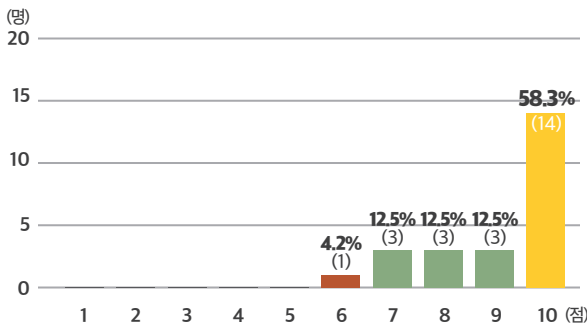


03.
주변 사람들에게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에 대하여 홍보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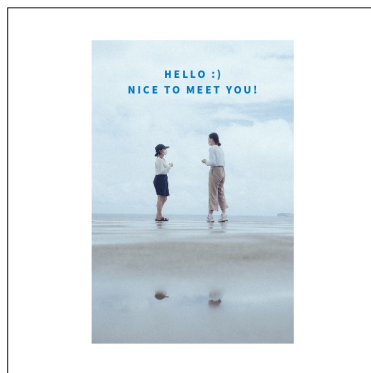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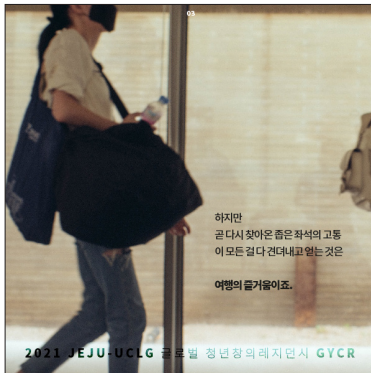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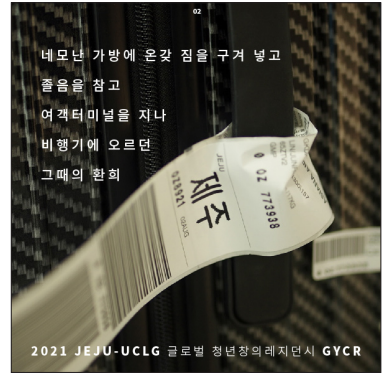
2021 UCLG GYCR
전반적 만족도

2021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행사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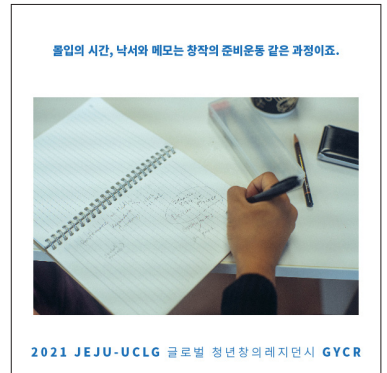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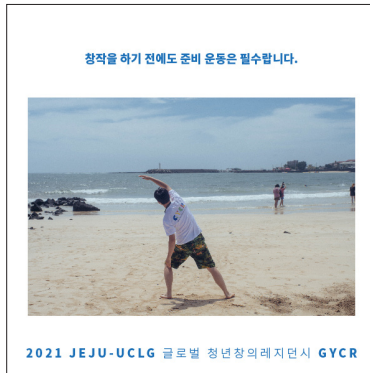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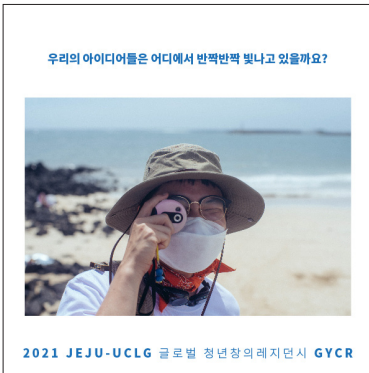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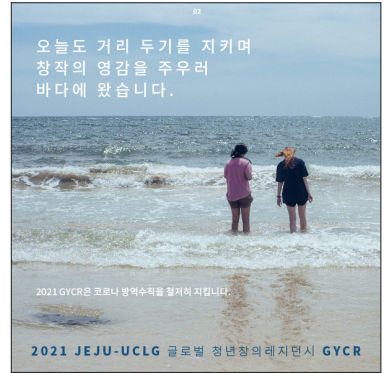
GYCR 이야기

Da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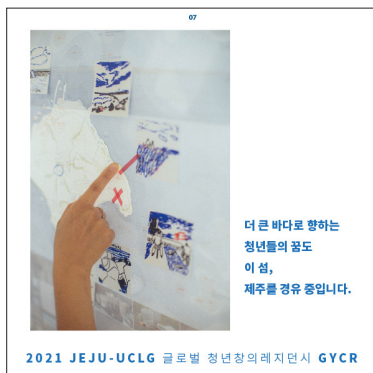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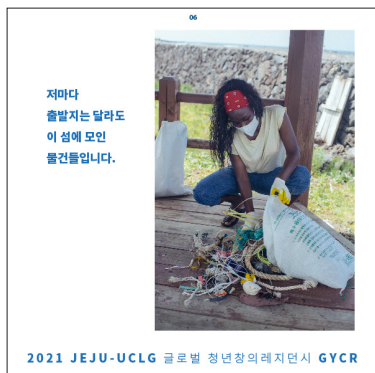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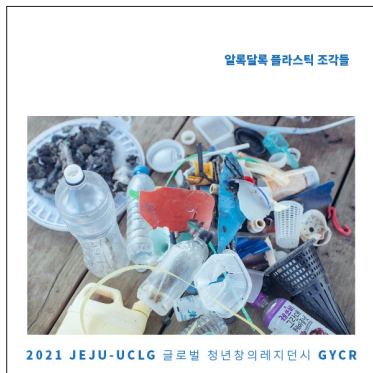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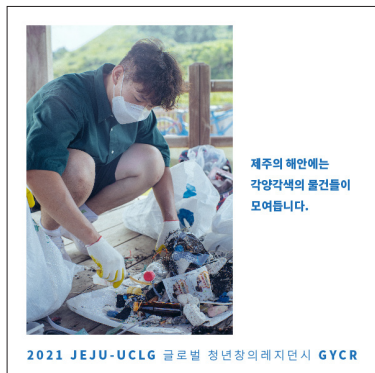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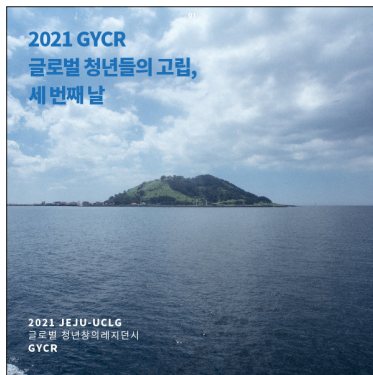


GYCR 이야기

Day 2



Day 3



GYCR 이야기

Day 4

01

2021 GYCR
글로벌 청년들의 몰입,
네 번째 날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력지연서 GYCR

2021 GYCR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02

여러분은
인생이란 길에서 나 혼자라고 느낄 때,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력지연서 GYCR

03

혹은 이 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력지연서 GYCR

04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등대 하나쯤은 가지고 싶지 않을까요?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력지연서 GYCR

05

GYCR의 글로벌 청년들에게
5일간의 등대가 되어준 4명의 멘토들, 그들을 소개합니다.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력지연서 GYCR

생태건축과 퍼머컬처 디자인을 하는 Uni Park 멘토는
자연의 순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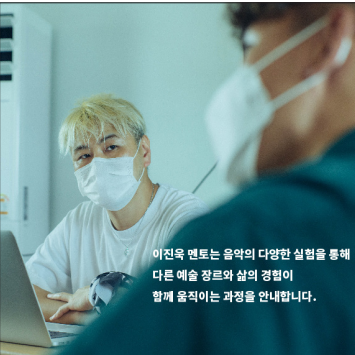
Bernd Halbherr 멘토는
미술 작가이자 미술대학의 교수로서
예술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해영 멘토는
제주 사람들의 전통적인 삶의 이야기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들려줍니다.



이진욱 멘토는 음악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다른 예술 장르와 삶의 경계가
함께 움직이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10

이렇게 든든한 멘토들과
글로벌 친구들이 함께 하기에 우리는 웃으며 나아갑니다.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력지연서 GYCR

Day 5

01



8월 2일부터 6일까지의
글로벌 청년들의
짧지만 긴 여정이었던
**'2021 UCLG GYCR 청년창의레지던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2021 GYCR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02

'UCLG'는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도시와 지방자치 정부의 연대이며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GYCR


03

세계 140개국의 1,000여 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입니다.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GYCR


04



'GYCR'은
Global Young Creatives Residency의 줄임말로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고밀형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GYCR


05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JDC, UCLG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GYCR

GYCR을 통해
세계 청년들이 제주에 모여
해녀 할망이 들려주는 옛이야기와
미지의 옛길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함께 노래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모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 협력하고 알아가며 문화적 차이를 넘어
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나는 꿈을 꾸입니다.



5일간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

안녕, 제주도!
다시 만나자, 우리!



10

2021 JEJU-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GYCR
Bye, See you again!



GYCR, JEJU, UCLG, JDC, GYCR

GYCR을 마치며

2021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는 나에게 _____ 였다.



나와 만났던 모든 것들과 모든 분들이
나를 성장시켜 준 시간

놀랍고 유용한 경험

2021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내가 한국 사회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고,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유익한 도전

제주에서의 새로운 발돋움

좋은 경험

커다란 세상

고리뼈

굉장히 유익한 인생수업

꿈

새로운 몸이 되기에 적절한 곳

신선한 공기 호흡

2021 UCLG GYCR은 나에게
최고의 여름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틈을 내어 바람을 통하게 했다.

그 전에는 너무 빈틈없이 완벽해야한다는 강박이 컸고, 이번 레지던시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내려놓고 또 비워주어야 그 사이로 바람이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팀원들하고도 그런 부분이 잘 통해서 신기하기도 했고 위로가 되기도 했다. 또 나자신을 깨끗하게 세우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세요.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모든 주최자 분들과 멘토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에 다시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멋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름 끝자락 대체불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진행됐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크게 느낄 수 있었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UCLG, 제주문화예술재단을 계속 기억하며 앞으로의 모든 프로그램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등록은 했지만 별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멋진 행사를 개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예술가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심지어 한 사람으로서도) 무척 특별한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나의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영감을 주었다. 참가 기회에 감사하며, 행사 개최를 위한 모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우리의 모든 요구와 문제에 훌륭하게 대응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기회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 기억은 오랫동안 간직하게 될 것 같다. 사람의 꼬리뼈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남아서 앞으로 작업할 때나 생활할 때나 함께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려와 격려의 코멘트에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스태프와 멤버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또 열린다면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를 만난 건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2021년 여름을 평생 간직할 멋진 추억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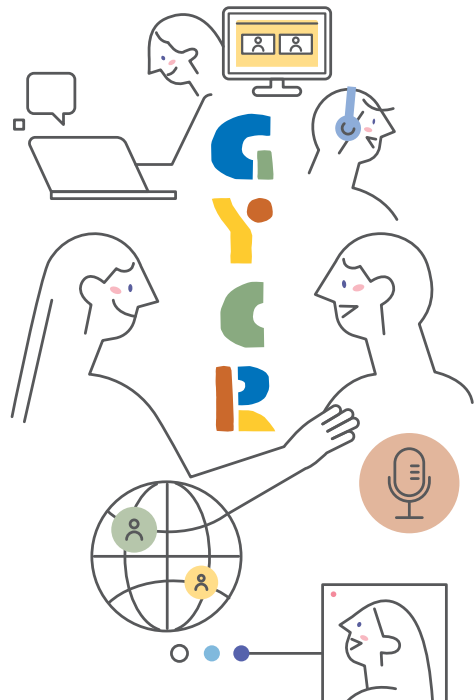
프로그램이 정말 알차고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기획하고 운영하신 분들의 가치관이나 마음 씀씀이가 어떤 지 잘 느껴졌고 멘토님들도 너무 좋았다. 많은 것이 새로웠고 놀듯이 재미있게 작업을 하고 그 과정을 즐겨보는 것도 꽤 괜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대단한 결과 도출을 해내진 못했지만 더 나은 저를 만드는 과정으로 제 인생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장들 몇개를 배운 것에는 분명하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참 여러 프로그램들을 참가해 보았지만 이렇게 의미 있고 추억이 될만한 프로그램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작품을 얼른 만들어야할 것 같은 압박이 있었지만 비양도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압박은 사라지고 편안해지며 멘토들과의 대화에서 고립의 중요성을 알게되었다. 그렇게 끈을 느슨하게 두어 들어오는 영감들이 정말 많았고 그곳에서 배운 점들을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번 청년 레지던시 활동은 나에게 배움점을 너무 많이 주었으며 또한 팀원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답변들이 다소 부정적이고 속상한 내용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보낸 시간들이 무척 즐거웠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개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가파도에 와서 시간을 보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멋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감사하다. 새로운 친구가 6명이나 생겨서 기쁘다. 또 가파도팀 매니저분께 팀원 모두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고 전해주시기 바란다. 매니저분이 무척 훌륭했고 팀원 모두가 불편한 건 없는지 세심히 살피주셨다. 덕분에 팀 내에서 팀원 모두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고 느꼈다. 가파도도 정말 좋았다. 나 혼자서는 안 가봤을 곳이지만 이번 프로그램 덕분에 다시 가도 좋을 것 같다. 제주를 볼 수 있는 건 멋진 기회였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제주로 이사하고 싶다. 초청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나중에 꼭 다시 오고 싶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말이다.

한여름 밤의 꿈을 꿨던 것 같다.



Thanks to

매니저

김재경, 이동준, 정기연, 조무결

영상/사진

오디오라디오 스튜디오

기획

헤썬드 커뮤니케이션즈

프로모션 디자인

오도오도 스튜디오

편집 디자인

디자인 공작